

## 연설문 (국문)

- ◎ 센베노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시 행정1부시장 윤준병입니다.  
먼저 벌써 3회째를 맞이한 동북아시아 시장 포럼의 개막을  
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
  
- ◎ 그리고 이번 포럼에서 다양한 해외 도시들과 함께 환경문제를  
논의할 수 있도록 서울시 대표단을 초청해주신 바트볼트  
송두이 울란바토르 시장님을 포함한 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 
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.
  
- ◎ 저는 지금까지 몽골을 와 본 적이 없었습니다.  
그래서 평상시에 몽골하면, 맑은 공기와 밤하늘을 수놓는  
영롱하게 빛나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쏟아지는 광활한 초원의  
모습들을 머릿속으로 그리곤 했습니다.
  
- ◎ 그런데, 이번 출장을 준비하면서 안타깝게도 몽골에서  
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, 이에 따른 황사를 유발하는  
모래폭풍도 최근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

- ◎ 몽골의 사막화와 황사문제는 결코 몽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 
세계 각 지역에서 무분별한 자연 파괴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추구해오면서 지구 전체의 온난화가 심각해지고,  
이에 따른 인류를 포함한 생태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 
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  
- ◎ 즉, 거의 대부분의 환경문제는 자연이 스스로 발생시킨 것이  
아닌 우리 인간들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,  
기후변화와 대기환경의 문제는 어느 한 국가, 어느 한 도시,  
어느 한 마을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.  
서울시도 이에 자유로울 수 없고,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 
있습니다.
  
- ◎ 서울시는 1950년 전쟁의 아픔과 폐허를 딛고  
인구 천만의 거대 도시로 급속한 성장을 하였지만,  
도시 난개발, 환경문제 등 세계 주요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 
도시문제로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.

◎ 특히, 최근 들어 미세먼지,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치솟고 있는  
상황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여,  
지진·해일과 같은 자연재해와 버금가는 재해로 선포하여  
비상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.

◎ ‘힘과 마음을 합치면 하늘을 이긴다’라는 몽골 속담이 있는  
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다함께 이번 포럼의 주제인 ‘저탄소  
도시발전 :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’과 관련하여  
각 도시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고 뜻을 모은다면 우리가  
직면한 환경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.

◎ 그리고 여러분, 아시다시피 한민족이었지만  
역사적 비극으로 분단되어 반목하며 지내왔던  
대한민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전쟁상태를 종식하고,  
한반도,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계를 구축하여  
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려는 역사적 시발점에  
우리는 서 있습니다.

◎ 한반도의 한 민족인 양 국가의 노력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 
응원과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.

그리고 서울시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.

이에 서울시는 동북아시아 도시들과 새로운 소통과 협력의  
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.

◎ 차기 포럼은 서울에서 국가의 벽을 넘어 도시와 도시가 손을  
맞잡아 환경문제,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뿐만 아니라  
상생, 경제협력, 평화공동체의 길도  
동북아시아 주요 도시들과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.

◎ 우리 함께 손잡고 평화롭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찬  
발걸음으로 나아갑시다.

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야를라.